“데뷔 30년…이제야 온전한 나로 사는 거 같아요”

27년만에 단독 콘서트 앞둔 김완선

예능 촬영하며 시청자와 거리감 좁히고

첫 영화 ‘삐에로…’ 찍으며 설렘 느껴

마이크를 잡은 김완선(48)의 몸짓은 경쾌했다. 밴드·코러스와 함께하는 연습인데도 리듬에 몸을 맡긴 듯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부르며 예쁜 실루엣으로 춤을 췄다.

강렬한 록 사운드로 편곡한 ‘오늘밤’을 끝으로 공연 연습을 마친 김완선을 최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연습실에서 만났다. 그는 1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27년 만의 단독 콘서트 ‘디 오리지널’(The Original)을 앞뒀다.

“공연은 1988년, 1990년 두 번 했으니 27년 만이네요. 지난해 30주년을 보내고 이 시간을 버틴 저와 변함없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념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인들이 100일, 1000일 선물을 주고받듯이요.”

그는 지난해부터 왕성하게 신곡을 내고 예능, 영화까지 섭렵하며 보폭을 넓혔다. 17일에는 신곡 ‘잇츠 유’(It‘s you)와 대표곡들이 담긴 앨범 ‘디 오리지널’도 발표한다.

그는 “30년간 돌고 돌다가 최근 내 자리를 찾아 안착하는 것 같다”며 “30대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고 40대가 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완선을 데뷔시킨 음반제작자인 이모 고(故) 한백희 씨의 아들로, 1998년 그룹 오룡비무방 멤버로 활동한 사촌 동생 김정현 씨가 그의 의욕적인 활동을 돕고 있었다.

공연 감독을 맡은 영화 ‘26년’ 연출자 조근현 감독에 대해 “작년 겨울 조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한국 개봉 제목 가제는 ’헤이데이‘)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나의 첫 영화다. 촬영이 끝날 즈음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하자 감독님이 ‘편집하고 남은 장면을 공연 영상으로 활용해보라’고 제안하시길래 영감이 왔다. 음악도 많이 들으신 분이라 연출 제안을 했더니 ‘안 해본 장르여서 재미있겠다’고 하셨다. ‘디 오리지널’이란 타이틀도 감독님이 붙여주셨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며 산 지난 30년 중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은 데뷔하기 전 연습생으로 보낸 3년으로 꼽았다.

“그때는 온전히 ‘나’였죠. 가장 음악을 많이 듣고 몸이 부서지라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공상도 하고 안달도 냈던 시기예요. 데뷔 후부터는 나였던 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로 많이 살아요. 혼자 이 음악, 저 음악 해보면서 나를 많이 채워나갔죠.”

김완선은 “노래, 춤, 작곡, 악기, 일본어 등을 배웠다. 16살 때 이미 화성악과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레슨받았다”며 “당시 SM 이수만 대표가 우리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이모와 대화를 나눴는데 나의 연습 과정을 본 뒤 보아를 키웠다”고 일화를 밝혔다.

김완선은 데뷔와 함께 상을 휩쓸었고 5집으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 1992년 6집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홍콩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홍콩 진출을 염두에 둔 이모는 은퇴라는 강렬한 이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홍콩에선 현지 가수의 듀엣곡에 참여한 정도이지 제대로 활동한 건 아니었다. 당시 홍콩과 대만을 두고 고민하다가 1997년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시기라 대만을 선택했는데 잘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6년 7집으로 컴백했지만 2005년까지 복귀와 공백이 반복됐다. 2006년에는 갑자기 하와이행을 택했다. 2011년 다시 복귀한 뒤 음악적인 변화가 눈에 띄었다. 특히 작년에 발표한 ‘강아지’, ‘유즈 미’, ‘셋 미 온 파이어’, ‘미르’ 등의 싱글에선 어쿠스틱과 일렉트로닉을 아우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40대에 다시 시작하면서 해마다 싱글을 냈고 작년에는 여러 곡을 냈어요. 나름대로는 30년의 음악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사촌 동생 정현이와 3인조 프로듀싱팀 ‘KW선플라워’를 만들어 자유롭게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에 대해서는 “신곡 ‘잇츠 유’와 2011년부터 낸 싱글을 모아 한 장의 CD에, 내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앨범의 대표곡을 두 장의 CD에 모아 총 30곡가량 수록했다”며 ‘잇츠 유’는 발라드인데 EDM 톤이 입혀져 춤도 출 수 있다. 올해도 꾸준히 싱글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KBS 2TV ‘불타는 청춘’에 8회부터 들어간 그는 프로그램에서 선후배 출연진을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100회를 넘겼다.

“요즘 지나치며 만나는 분들이 얼굴을 가까이 대고서 인사하세요. 거리감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불타는 청춘’을 하면서 여행과 좋은 사람들이 주는 힘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에 대해서는 “10대에 데뷔해 중년이 된 한 가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가 반영됐다”며 “연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 감독님이 5월에 다른 영화 작업을 하는데 존재감 있는 조연으로 캐스팅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나이 들고 축 처질 때가 됐는데 일하는 게 요즘 너무 재미있어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설레었습니다. 2~3시간밖에 못 자고 추운 날 촬영하러 가면서 내가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 결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어요.” /연합뉴스

왼쪽부터 제임스 맨골드·제임스 건·조던 보그트 로버츠 감독.

“한국영화서 영감 얻었죠”

영화 ‘가디언즈…’ 제임스 건 감독…“한국영화 팬”

제임스 맨골드 등 할리우드 감독들 찬사 이어져

“예전에는 프랑스와 홍콩영화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한국영화의 시대입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이하 ‘가오갤2’)를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이 11일 국내 언론과 가진 화상 콘퍼런스에서 한국영화에 대해 극찬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 ‘괴물’, 나홍진 감독의 ‘곡성’,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등 복수 시리즈를 언급하며 “이런 한국영화들 덕분에 내 영화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오갤2’의 홍보사 측은 “제임스 건 감독은 2015년에도 페이스북에 ‘최근 5년간 가장 좋았던 영화’로 ‘마더’를 꼽은 적이 있다”면서 “실제로 한국영화의 팬”이라고 전했다.

한국영화에 대한 할리우드 감독들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킹콩 영화인 ‘콩 : 스컬 아일랜드’를 연출한 조던 보그트-로버츠 감독도 지난 2월 내한해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하 ‘놈놈놈’) 등 한국영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 3편으로 ‘곡성’, ‘아가씨’, ‘밀정’을 꼽았다.

영화 ‘로건’의 제임스 맨골드 감독도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로건’이 한국의 액션영화와 형사영화, 누아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감독들의 이런 언급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국내 팬들을 잡기 위한 ‘립서비스’ 성격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영화에 진심 어린 애정을 표시하는 감독들도 많다는 게 영화계의 전언이다.

한 영화홍보사 관계자는 “불과 4~5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감독이 내한할 경우 한국영화 몇 편을 전달해 미리 보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전 예상 질문이나 지침을 주지 않아도 할리우드 감독들이 실제 한국영화를 많이 알고 있고, 질문에도 소신껏 답한다고 전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 이후 한국영화가 외국의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면서 “박 감독과 봉준호 감독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감독이 됐고, 이 감독들을 위시한 작품들이 연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30 한국인의 밥상(재)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19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 〈바른정당〉 30 주말연속극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우리말 겨루기(재)	00 정신 이슈(재)		55 닥터 365
2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꾸러기 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30 여유만만 (재)	00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10’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30 제19대 대선 정강정책연설 -국민의당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스위스 융프라우 마터호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병어 고추장찌개와 가지 멸치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극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어벤져스: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미국역사기행 3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 워싱턴 D.C〉
21:30 한국기행 〈부자의 비밀 3부 꽃섬, 부자가 되다〉
21:50 EBS 다큐 프라임 〈아시아 원시 부족 탐험〉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범죄자의 마음을 읽는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2일(음 3월 16일 己巳)

子 48년생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되는 판국에 이른다. 60년생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완하지 않으면 큰 일 나게 되어 있다. 72년생 당연시 해 왔던 것 속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84년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행운의 숫자 : 40, 28

丑 49년생 상대를 배려한다면 배가 되어 돌아 올 것이다. 61년생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이니 분명하게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불가항력적인 고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85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3, 73

寅 50년생 순간적인 착각에서 기인한 변화의 시도가 문제다. 62년생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지리라. 74년생 가볍게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 86년생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59, 34

卯 51년생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만 한다. 63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75년생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보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의 부피가 훨씬 더 크다. 87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행운의 숫자 : 70, 85

辰 52년생 전대미문의 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64년생 일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별것 없으니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76년생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 하리라. 88년생 길한 빛을 띠기 시작 했으니 머지않아 좋은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61, 03

巳 53년생 장담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65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89년생 효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0, 30

午 42년생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국량이다. 54년생 설계를 잘 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66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78년생 지금 굳이 표명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90년생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55, 05

未 43년생 뜻을 펼쳐도 될 때다. 55년생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절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67년생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79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91년생 상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27, 91

申 44년생 추진하되 무리해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하나부터 열 까지 모두 검토 해야만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68년생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속 시원히 알게 된다. 80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80, 98

酉 45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57년생 본분에 충실 하는 것만이 가장 중하다. 69년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때이다. 81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잘 것 없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37

戌 46년생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 느긋하게 마음먹자. 58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교두보가 형성 된다. 70년생 뒤섞이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 하겠다. 82년생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6, 46

亥 47년생 대세가 기울었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옳다. 59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서자. 71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83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